

-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 -

2019년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및 한인회 교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19. 1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목 차

1. 출장개요	1
---------	---

2. 출장일정	2
---------	---

3. 출장국가 현황	3
------------	---

4. 출장도시 현황	5
------------	---

5.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9
----------------	---

6. 총평(의원별 후기)	20
---------------	----

1. 출 장 개 요

방문국가 : 미국(뉴욕, 워싱턴)

출장목적

- 한국과 미국의 시민, 청소년의 문화, 체육 분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한 뉴욕퀸즈한인회 및 한미문화교류재단(이사장 우찬희)과의 교류 체결(MOU)로 뉴욕 퀸즈 보루와 서울 중구 간 양 도시의 발전과 협력 추진
- 뉴욕퀸즈한인회(회장 김수현)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문화체험 및 독도 알리기」 행사 참석
-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을 방문하여, 의회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고 수준 높은 의회 및 지방자치제도 운영 방식을 우리 구에 맞도록 접목
- 뉴욕, 워싱턴의 대표 도심산업 시찰로 우리 구의 도시공원 및 도시 재생 정책 발전방안 고찰

출장기간 : 2019. 10. 21.(월) ~ 2019. 10. 29.(화)

출장자 명단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장	조 영 훈	
2	부 의 장	이 화 목	
3	행정보건위원장	윤 판 오	
4	의 원	이 승 용	
5	의 원	길 기 영	
6	의 원	김 행 선	

2. 출 장 일 정

월 일 (요일)	도시	업 무 내 용
10.21 (월)	인천 뉴욕	인천 공항 출발 (OZ222 / 10:20) 뉴욕(JFK) 공항 도착 (11:35) 〈공식방문〉 뉴욕 시민참여센터(KAGC) 〈공식방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
10.22 (화)	뉴욕	〈공식방문〉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식방문〉 뉴욕 현지방송국(K Radio AM1660) 인터뷰 (의장, 부의장) 〈공식방문 및 협약체결〉 퀸즈 한인회 협약 체결(자매결연)
10.23 (수)	뉴욕	〈현장시찰〉 뉴욕 맨하탄 도시계획 및 교통 등 산업시찰 (타임스퀘어, 록펠러 센터 광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유엔본부, 도심공원 센트럴파크 등)
10.24 (목)	뉴욕	〈공식방문〉 뉴욕 현지방송국(KBN) 인터뷰(의장) 〈공식방문〉 뉴저지 윤여태의원 방문 〈공식방문 및 협약체결〉 한미문화교류재단 협약 체결(자매결연) 〈공식행사〉 대한민국 문화체험 및 독도 알리기 문화축제
10.25 (금)	필라델피아	〈공식방문〉 서재필 기념관
10.26 (토)	워싱턴	〈현장시찰〉 워싱턴 D.C. 의회운영 및 문화 시찰 (국회의사당, 백악관, 워싱턴 기념관, 제퍼슨기념관 등)
10.27 (일)	워싱턴, 뉴욕	〈현장시찰〉 링컨기념관, 6.25참전 용사기념비 추모 ※ 우천으로 오전 일정만 진행
10.28 (월), 10.29 (화)	뉴욕	뉴욕(JFK)공항 출발 (OZ221 / 13:00) 인천국제공항 도착 (14시간 소요, 16:30)

3. 출장국가 현황¹⁾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국 명 :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 of America)
- 수 도 : 워싱턴 D.C. (시차 한국과 -13시간차)
- 언 어 : 영어
- 면 적 : 약 9,826,675 km^2 (한반도의 44.495배)
- 인 구 : 약 3억 2천 7백만명 (세계 3위)
- 민족구성 : 백인(80%), 흑인(13%), 아시아계(5%), 기타(2%)
- G D P : 약 21조 3,446억 달러 (세계 1위)
- 화폐단위 : 달러(Dollar)
- 기 후 : 온대성기후, 냉대기후
- 지 리
 - 대륙을 가로질러 넓은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보여주며, 자연지리학적으로 볼 때 5개의 주요지역군으로 나눌 수 있다. 대서양 연안평야 지역, 동부와 남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 지역, 미국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내륙평원', 북아메리카 코르디예라 산계, 그리고 이 산계의 지맥에 속하는 서부의 '산간고원' 등으로 구분된다.
 - 국토는 산악지대, 평원, 저지대 및 사막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미국 내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데스밸리로, 이 지역에는 해수면보다 82m나 낮은 곳도 있다.
 -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알래스카 산맥의 매킨리 산(6,194m)이지만, 48개주가 있는 본토에서 가장 높은 곳은 휘트니 산(4,418m)이다.

1) 참고자료 : 다음백과

□ 정 치

- 미국은 하나의 연방정부와 50개의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1789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일부 선택적인 권력만 연방정부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 최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데 대통령은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원수, 군의 최고사령관, 조약체결권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행정수반으로서 입법의 제안, 대외정책의 입안 등의 권한을 가진다. 입법권은 435명의 하원과 100명의 상원에 부여되어 있다. 각 주는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을 선출한다.
- 하원의원은 일반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의 의원 수는 각 주마다 10년 단위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되는 인구에 비례해 할당된다.
- 중도좌파 성향인 민주당과 중도우파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이 선거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각 정당은 폭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양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은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으로 서로 중복된다.

□ 경 제

- 선진자유무역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은 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20조 5100억 달러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6만 2,518 달러로 최고 7위권 수준에 속한다.
- 인구는 전 세계의 5% 수준이나 석탄·구리·원유 생산량은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을 보면, 옥수수 세계 총생산량의 50%,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는 20%, 밀은 10% 이상을 차지한다.
-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 강대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자본의 원천으로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미국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경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며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출장도시 현황²⁾

뉴욕(New York City)

- 인 구 : 8,550,405명 (2015 추계, 서울시 인구와 비슷)
- 면 적 : 1,214 km^2 (서울시의 2배)
- 도시설명



- 허드슨 강 어귀에 자리 잡은 항구도시이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맨하탄(Manhattan), 브루클린(Brooklyn), 퀸스(Queens), 브롱크스(Bronx), 스타튼아일랜드(Staten Island) 등 5개 구(boroughs)로 구성
- 맨해튼·스태튼·롱 섬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토의 일부, 뉴욕 항과 롱아일랜드 해협이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 맨해튼은 시의 중심부이며, 그 남단에 금융 중심지인 월가(Wall Street)가 있고 브로드웨이의 42번가는 타임스스퀘어로 뉴욕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임

2) 참고자료 : 다음백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자료 제공

□ 경 제

- 뉴욕 시는 세계적인 무역·금융·예술·패션의 중심지로 미국 대중전달 매체의 심장부 역할
- 세계 금융 중심지로의 다양성 때문에 대형 자동차 공장들에 의존하는 디트로이트나 항공 및 방위산업에 관련된 캘리포니아보다 불황을 잘 극복
- 자동화와 기업합병으로 뉴욕 시의 일자리가 많이 줄고 급등하는 임대료와 세금, 높은 범죄율 때문에 시를 떠나는 회사가 급증
- 최근 공해와 생존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매력도 떨어져 중상층의 시민들이 대거 근교로 옮겨감에 따라 고급인력은 시 밖에서 구해야 하는 상황이나 여전히 젊은이들, 특히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매력을 발산하는 곳임

□ 정 치

- 시 정부는 시장, 예산위원회, 시의회로 구성
- 시장은 4년 임기이고 부시장과 각 기관장들을 임명
- 시의회는 시 전체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는 의장과 4년 임기로 선출되는 의원 43명으로 구성되며, 모든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며 2/3의 표결로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음
- 예산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다루는 것을 주된 권한으로 하며, 시장·의장·감사관과 5명의 자치구 회장으로 구성되며, 시장·감사관·시의회 의장은 각각 위원회에서 2개의 투표권을 가짐

워싱턴 D.C.(Washington, D. C.)

- 인 구 : 681,170명 (2016 추계)
- 면 적 : 159 km^2
- 특 징 : 미국의 수도(1790년 지정)
- 도시설명



- 워싱턴 D.C.는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자치구라는 미국의 어느 주에도 해당되지 않는 연방 정부의 직할 지구로 국가 행정부의 소재지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적 활동의 중심지이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으로 국제 정치, 외교의 중심지
- 메릴랜드 주(북동쪽)와 버지니아 주(남서쪽)를 경계 짓는 포토맥 강의 항해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으며, 프랑스인 건축가 피에르 샤를 랑팡의 설계로 건설된 계획도시로 백악관과 워싱턴기념탑을 중심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
- 거주 인구는 70만 명이나 인근의 위성도시(버지니아, 메릴랜드주)까지 합치면 약 400만 명이 사는 대도시로, 대다수의 사람이 공무원, 법률가, 정부 관련 종사들이라 주택비와 교육비는 뉴욕과 비슷할 정도로 높음

□ 경 제

-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직종은 행정직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적 활동은 관광업이고 제조업과 기타 상업 활동은 빈약한 수준
- 대도시권의 많은 인구들이 연방정부기관에 근무하거나 국가적·국제적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정부사업을 보조하거나 정부시책에 따라 구성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음
-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적인 조직들이 있어 국제협력·무역·금융의 중심지로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전국적으로 중요한 기념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때는 봄철과 여름철이지만 사실상 수도인 워싱턴을 찾는 관광객은 연중 끊이지 않아 관광수입이 시에서 2번째로 큰 수입원임

□ 정 치

- 워싱턴 최초의 정부는 1802년에 성립되었는데, 당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장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로 구성되었다가 1820년에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의회의 의원들을 선출
- 그러나 미국 헌법에 따라 1970년대 초반까지 국회의 권한이 강하여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고, 시의 행정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
- 지방자치제를 향한 운동이 계속 전개되면서, 1973년 닉슨 대통령 정부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되었고 시장은 폭넓은 개정권·임명권을 갖게 되었으며, 시의회의 권한도 확대되어 세율과 세액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변경하고 특별구 정부의 각종 기관을 조직·해체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국회가 연방국가의 이익에 위배되는 특별구 정부의 모든 행정활동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구가 자치정부의 형태를 갖추었다 해도 여전히 연방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취급

5.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뉴욕 시민참여센터(KACE)

방문개요

- 일 시 : 2019. 10. 21.(월)
- 방문목적 : 한인 인권 강화를 위하여 노력 중인 시민참여센터 격려
- 참석자 : 11명(의원 6, 수행직원 4,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시민참여센터 설명

- 비영리 단체로 1996년 설립되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 강화를 통해 뉴욕 내 한인들의 투표권 확장을 위해 노력
- 미국에 한국 문화에 대한 우호 인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노력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Q) 시민참여센터가 미국 내에서 하는 일은?

- 1996년도에 유권자센터로 시작되어 한국과 달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제도에 대한 캠페인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인구조사참여 등 한인들이 미국 내에서 정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문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음
- 매년 여름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중구 내에 유능한 대학생들도 참여해준다면 미국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아주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됨

Q) 미국 내에서 인구조사가 차지하는 의미는?

- 2020년은 미국에서 10년 만에 인구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센터에서는 인구조사참여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
- 미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온 이민자들이 많고 정부에서 하는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구 통계의 오차가 매우 큰데, 인구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1명당 연방정부로부터 2,000달러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산이 노인 아파트, 저소득 지원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기에 인구조사에 응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매우 중요함

Q) 인구조사가 10년마다 진행하는데 오차가 큰 이유는?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텐데 지방정부가 관리가 안되는가?

- 미국은 이민자가 많은데, 이민자 중에도 서류가 없는 사람이 1,200만 명이나 된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고, 특히 중동에서 이민 온 사람들, 유학생 등이 많다보니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음
- 전체 인구조사에 응하는 인원은 64% 정도 됨
-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Q) 한반도 정세에서는 남북관계로 인하여 향후 미 대선에 관심이 많은데 전망은?

- (김동찬 대표 의견)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보지만 최근 중간선거에서 과거 공업지역으로 일컫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함
- 또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는데 특히 미국 내 수입업체, 소비자는 연말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미 대선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미지수

관련사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10. 21.(월)
- 방문목적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의 지방의회 역할 고찰
- 참석자 : 20명(의원 6, 수행직원 4,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양호 회장 및 이사진 10)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설명

- 미국 뉴욕에서 민족사의 동반자로서 동포사회에 통일의 담론을 담아 내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미국 사회에 전하고자 노력
- 뉴욕협의회(회장 양호) 자문위원은 145명(여성40%, 차세대30%)으로 현 회장인 양호 회장은 18기 회장에 이어 19기 회장에 연임
- 재외동포사회의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에 기여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Q)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을 연임하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연임한 비결은?

- 최근 한인사회가 정치적으로 많은 발전을 함에 따라, 뉴욕협의회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음
-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반자적인 마음가짐이 중요
- 자문위원이 150여명 되는데, 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려는 마음이 연임을 할 수 있던 비결인거 같음

Q) 미국 내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역할은?

- 한국에서의 민주평통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중요
-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국사회에 이야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 또한 미국 사회에서 한인이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

Q)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자금은 현지에서 지원되는가?

- 뉴욕 지방정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보조금 중복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지원을 못 받게 됨
- 따라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미주 중앙 사무국에서 지원받는 것으로만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회 내 자문위원 및 이사진의 자체 조달로 운영되어 많이 열악함

Q) 19기 뉴욕협의회 활동 목표는?

- 올해는 1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여성과 청년 비율을 각각 40%, 30%로 늘려 세대교체와 인원 다양성을 추구
- 문재인 대통령은 2045년까지 통일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민 1.5세대~2세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사회에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
- 또한 250만의 미주동포 및 해외동포가 협력해야만 한반도 평화, 민족의 화해와 번영의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미주 한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
-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반도평화 국제회의 및 통일강연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위원 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예정임

관련사진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10. 22.(화)
- 방문목적 : 재미동포의 권익보장 및 한미 우호관계 증진 정책 시찰
- 참석자 : 14명(의원 6, 수행직원 4, 박효성 총영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조원갑 소장 등 3명)

□ 총영사관 설명

- 1949년 4월 1일에 창설하여, 현재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이 등 5개 주, 42만여명 동포를 관할
- 뉴욕의 중심부인 파크에비뉴 460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인 동포의 뉴욕지역 생활기반 조성 및 미국 내 사회 진출의 기회 지원
- 과거 1997년 한국 IMF 외환위기 발생 시 뉴욕 총영사관 사무소 매각을 고려하였으나 매각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Q) 최근 뉴욕 총영사가 새로 내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간 부임 하면서 느낀 소감은?

- 2017년 12월에 부임한 이래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 과거 토론토에서 영사로 부임한 경험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음
- 한인사회가 과거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잠재력이 있고 단합하면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장점이 있음
- 또한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대표단이 오고 동포사회에서 하는 의미있는 사업을 함께하고 있어 개개의 역량들이 30년 전과는 많이 다름
- 1.5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겪으면서 동포사회도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각과 역량이 출중하여 향후 기대가 됨

Q) 총영사관에 우리 의회와 같이 기관에서 방문을 자주하는가?

- 최근 들어 각계각층의 사절단 및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러 자주 방문
- 특히 중구의회는 최근 일본의 독도 발언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번 독도 관련 행사에 오셔서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판단됨

Q) 뉴욕에 한인사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

- 1883년 민영익 보빙사 일행이 미국 체스터 대통령에게 고종황제의 국서를 봉정한 것이 미국 방문의 초시
- 그 이후 1900년대부터 이민 1세대가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청과상, 수산소매, 세탁업 등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
- 1.5세대, 2세대로 넘어오면서 변호사, 의사, 금융전문가 등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한인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변호사 등이 많음

Q) 뉴욕에 50층 이상 되는 건물이 500여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공실이 없이 다 차있는가?

- 전 세계 금융, 서비스,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세계의 수도'로 불려지고 있는데, 높은 임대료 등으로 맨하탄의 공실비율은 최근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뉴욕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나 쉽지 않은 상태
- 뉴욕 총영사에서는 한인사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 중

Q) 뉴욕시에서의 한인사회 같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자발적인 거리정화, 개별 행사 개최 시 간접지원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자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것은 없음

관련사진



뉴욕 주 퀸즈 한인회(KAAQ)

방문개요

- 일 시 : 2019. 10. 22.(화)
- 방문목적 : 양 국가의 교육, 문화, 예술, 청소년 교류를 위한 상호 교류 협약 및 자매결연 체결
- 참석자 : 20명(의원 6, 수행직원 4, 김수현 한인회장 및 이사 등 10명)

퀸즈한인회 설명

- 뉴욕 주 퀸즈시 한인 인구는 20만명(퀸즈시 전체 인구 230만명)으로 퀸즈한인회는 한인 동포의 미국 내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플러싱한인회(1980년 창립)와 퀸즈중부한인회(1984년 창립) 통합으로 창립
- 퀸즈한인회는 미국 시민, 청소년들과 한국 시민, 청소년들과의 교류 협력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축제(대한민국 문화체험 및 독도 알리기) 행사를 매년 후원
- 집행부가 변호사와 회계사 등 1.5세와 2세 전문직 한인들로 이뤄진 것을 활용해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이벤트를 개최

중구의회-퀸즈한인회 상호 교류 협력(자매결연) 주요내용

- 교육, 문화, 예술,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 전개
- 인적, 물적 교류 증대로 상호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양 국가 주민 등의 비교시찰, 세미나 교류 활동 시 지원방안 강구

관련사진



뉴저지 저지시의회(윤여태 시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10. 24.(목)
- 방문목적 : 의회 선진국의 의회운영제도 비교시찰
- 참석자 : 11명(의원 6, 수행직원 4, 윤여태 뉴저지 시의원)

□ 뉴저지 저지시의회 및 윤여태 시의원 설명

- 뉴저지 주 북부지역에 위치한 저지시티는 인구 26만명에 총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명은 각 선거구에서 선출하고, 3명은 시 전체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의원당 1명의 보좌관을 둠
- 윤여태 시의원은 1979년에 미국 뉴저지로 이민, 허드슨한인실업인협회 회장 및 9년간 저지시티 부시장을 역임하면서 뉴저지 한인타운 개척을 지원함
- 한인 유권자가 6명 밖에 없는 선거구에서 2013년 동양인, 무소속으로 당선된 최초의 한인 2선 시의원으로, 동양인 시의원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장에 항상 나비넥타이를 매고 다녀 '나비넥타이 신사'로 불림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Q) 한인 최초로 2선 시의원인데, 비결은?

- 당시 한인 출신이 미국 지방정부에서 부시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많은 무시를 당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지시의 전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시정을 펼쳤음
- 지금도 나비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시의원에 당선되고나서 동양인 시의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항상 나비넥타이를 매고 다녀 주민들로부터 '나비넥타이 신사'로 불리기까지 함
- 결국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행정, 의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

Q) 미 지방의회와 한국의 지방의회의 차이점은?

- 의회에서 각종 법안을 의결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법안의 찬반여부에 대한 발언을 함

- 의회 개회 시에는 반드시 시의 변호사가 배석하는데, 이유는 변호사가 법안의 적법성 및 상위법의 저촉성 등을 현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배석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할 경우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됨

Q)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행령을 시장이 수용을 못하면?

- 한국과 동일하게 의회에서 의결된 시행령에 대해 20일 이내에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20일 후에 법령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의 변호사가 배석하여 이미 법안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불수용은 있을 수 없음

Q) 1년에 의결되는 시행령 및 조례는 몇 건인가?

- 시행령은 150건, 조례는 500건 정도되며 회기는 월 4회 정도 개최되는데 중간중간 소위원회 등이 개최됨

Q) 의원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의원은 각종 현안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속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
- 소위 권위적인 부분은 미국 지방의원들이 더 심한데, 이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위임
- 따라서 항상 공부해야 하며, 현장을 한번이라도 더 나가야 하고 특히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함
-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소수에 대한 배려가 필수며, 미국에서 법안을 통과될 때도 기본적으로 소수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포함됨

관련사진



한미문화교류재단(KACEF)

방문개요

- 일 시 : 2019. 10. 24.(목)
- 방문목적 : 양 국가 청소년 문화교류 등의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참석자 : 20명(의원 6, 수행직원 4, 우찬희 이사장 및 이사진 10명)

한미문화교류재단 설명

- 2015년 5월에 미국 뉴욕 주 퀸즈시에서 창립한 한미문화교류재단은 '한국 문화체험 및 독도 알리기 후원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음
- 미국 내에서 일본의 잘못된 독도 소유권 홍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국 문화체험 및 독도알리기 행사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미국 내 주요인사를 초청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및 독도를 알리고 있음
-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한인 2세와 3세 학생들은 물론 타민족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마다 '한국 문화 역사 체험단'을 모집,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음

중구의회-퀸즈한인회 상호 교류 협력(자매결연) 주요내용

- 청소년들의 역사, 문화, 체육 등 문화교류 등의 상호방문 증진
- 양 국가 주민 등의 비교시찰, 세미나 교류 활동 시 지원방안 강구

관련사진



그 외 활동 및 주요 시설 시찰(현장)

현지 방송국 인터뷰(K Radio AM1660, KBN)

○ 주요내용

- 뉴욕 주 퀸즈 내 한인 방송국인 K Radio AM1660(10.22.), KBN(10.24.)에 각각 출연하여 미국 방문 목적, 중구 현 상황, 중구의회 의 앞으로의 계획 및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였음

○ 관련사진



서재필 박사 기념관 방문

○ 주요내용

- 한국 근대화의 선각자인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 망명한 1925년부터 25년간 거주하며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염원하면서 활동한 주거지 (현 서재필 기념관)를 방문하여, 월남 이상재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서재필 박사가 걸어온 숭고한 역사를 설명 들으며 시찰하였음

○ 관련사진



6. 총 평(의원별 후기 등)

두 얼굴의 나라, 미국!!

이번 공무출장에 대해 미국을 한 마디로 '두 얼굴의 나라, 미국' 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싶다. 처음 입국할 당시부터 출국할 때까지 공항에서 느낀 관료주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친절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로부터 만들어진 나라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아이러니한 상황임이 아닐 수 없다. 불편한 첫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임을 부인할 수 없고 앞으로도 최강국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 바로 이민자들에 대한 개방성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명실상부 세계의 수도, 뉴욕!!

뉴욕은 미국의 독립 당시 최초의 수도로, 150년 전에 이미 현재 뉴욕의 위상을 예측이나 한 듯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계획건설을 한 도시였다. 건물은 150년 전 지어진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건물과 도로의 조화가 매우 현대적인 감각을 뽐내고 있었다.

또한 뉴욕 맨해튼은 단순히 미국의 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들과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였다. UN본부의 본거지이기도 한 뉴욕 맨해튼에는 전 세계 대사관이 밀집해 있고 193개의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250여개의 국가의 사람들이 거주 또는 방문하고 있으며 일간신문 또한 56개의 언어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유입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곳이 뉴욕, 맨해튼이 아닐까 싶다.

또한 한 해 관광객이 6,500만명(외국관광객 4,500만명, 자국관광객 2,000만명)인데 자국민들도 죽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해야 할 곳일 정도로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 있는 도시이다.

이런 결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신도시를 만들 때 150년 전에 완성된 도시 맨해튼을 여전히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포용력 있는 세계관 형성 필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세계관으로 자국 중심의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포용력 있는 태도로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세계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둔다면 다시 찾고 싶은 나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 의원별 후기

○ 조영훈 의장

- 입국 심사를 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입국자가 많은 시간에는 모든 카운터를 다 열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처리를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입국심사를 담당하던 직원들의 느긋하고 권위적이던 태도가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민 중심의 사고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느꼈습니다.
- 이민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하여도 외국인에게는 배타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욕퀸즈한인회에서 만난 분들을 생각하면 낯선 타국에서 자리잡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새롭게 적응하는 한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않기 위해 한국문화축제 행사도 후원하는 등 자신의 뿌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근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준비한 행사에 많은 점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이화목 부의장

- 미국 동부 쪽은 처음 방문하게 되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급변하는 한국에 비해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들이 미국 속 한인들의 생활공간이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화가 안된 듯한 인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오신 한국 동포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분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해외선진지 견학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지금까지의 출장에 비해 이번 출장은 공식적인 기관방문 일정이 많아서 좋았고 세계 속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정치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

- 공적이든 사적으로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지만 이번 미국 출장은 감회가 남다른데, 그 이유는 아마도 떠나면 타지에서 힘겹게, 그러면서도 힘차게 살아가는 한인들의 진짜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그 속에서 당당히 미국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뉴욕 맨해튼의 100년 미래를 예견한 도시건설을 이룩한 정부차원의 고민과 150년이 넘도록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점목시킨 지방정부의 도시운영 체제는 1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 중구에서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 뉴저지 저지시에 한국인 최초의 2선 시의원인 윤여태의원과의 대화는 구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광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중구의 동대문과 남대문시장을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다시찾고 싶은 매력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승용 의원

- 중구에는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들과 여러 항일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더불어 지속적인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꾸준히 독도를 방문하고 있는 한미문화교류재단과의 중구의회 협약은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련의 경제보복사태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중구의회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에 따른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미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반증하듯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경중을 떠난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의 기관으로서 다양한 의견이야말로 의정활동의 나침반일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 또한 앞으로 정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길기영 의원

- 맨해튼에 방문했을 때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견고함을 자랑하며 우뚝 서있는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뉴욕이 세계의 수도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또한 뉴욕 총영사님과 대화 중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소우주라고 볼 수 있다는 총영사님의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든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중구 명동 또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금융업 등 많은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한국 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이 맨해튼과 닮았다고 느끼며 어떻게 하면 맨해튼과 같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도시로 발전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니 주택가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미국인들에게는 죽음 또한 삶과 함께라는 철학을 엿볼 수 있었으며, 어떤 일이든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 또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 김행선 의원

- 미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뉴욕 시민참여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등 뉴욕 내에서 자리잡고 살아가는 한인들을 만나면서 타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정정당당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청소 정책에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주변 섬에 매립하고 있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지만 자기나라만 아니면 된다는 협소한 사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미국이 경제적 강대국인 만큼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태도로 보인다면 더욱 매력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